

정조 시대 초계문신(抄啓文臣) 제도의 명암(明暗)

심 경 호 (고려대학교 교수)

정조 시대 초계문신(抄啓文臣) 제도의 명암(明暗)

심 경 호 / 고려대학교 교수

1. 들어가며
2. 정조의 세손시절 시문 학습
3. 정조의 현실개혁 모색과 제술 중시의 연관
4. 정조의 제술 중시가 지닌 부정적 측면
5. 성균관 유생에게 부과한 제술과의 관련
6. 나오며

1. 들어가며

정조(이름 李祘)는 1762년 생부 장헌세자(莊獻世子, 사도세자)가 죽임을 당한 이후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의 후사가 되어 세손으로서 수학하다가, 1776년 영조가 승하하자 25세의 나이로 조선 제 22대 국왕이 되었다. 정조 재위의 전반은 청나라 건륭제의 치세와 겹친다. 거대 제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조선의 만기(萬機)를 총괄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정조는 떠맡아, 즉위년의 교서에서 숭유중도(崇儒重道)가 국가의 급무라고 규정했다. 정조는 ‘유위지주(有爲之主)’이고자 했으며, ‘군사(君師)’로서 새 시대이념을 제시하고자 했다. 곧 정조는 군주로서 『중용』에서 이른바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제대로 길러지는 성과를 현실 정치의 장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다.¹⁾ 군사의 개념은 17세와 18세 때 시장원의 서연에서 김종수(金鍾秀, 1728~1799)의 권면을 듣고 마음에 새긴 말이다. 정조는 군사의 이념을 세

1) 正祖, 『弘齋全書』 卷107 經史講義44 ○總經2 中庸. “天地位萬物育, 此子思極言中和之成效, 而章句以天地位爲致中之效, 萬物育爲致和之效. …… 後世人君, 以位育之功, 邈然視之以高遠難行之事, 而謂非三代以下所可幾及, 則中庸之書也, 而聖人故爲河漢之語, 以阻人之進耶? 況工夫造詣有淺深, 故功效孚應有大小. 藉曰聖神功化之極, 未易遽致, 則勿忘勿助循序漸進之際, 亦豈無小康之效驗, 可以次於位育者耶?”

손 시절 김종수의 계도에 의해 자각했지만, 즉위 후는 김종수의 간섭을 배제했다. 정조는 인정의 원리를 통치행위에 구현하고자 했다. 궁정의 안팎과 국가의 내외에서 많은 난제에 직면했지만 자신의 시대를 잔양(殘陽)의 시기로 보지 않고,²⁾ 역사의 진보를 믿으면서 25년간 소의한식(宵衣旰食)했다.

정조는 재위 5년(1781, 신축)까지 규장각의 기능과 관제가 확립되자, 이 해 2월 초계문신(抄啓文臣) 제도를 만들었다. 곧, 科擧를 거쳐 등용된 堂下官 가운데 參上參下의 槐院 分館의 37세 이하 문신을 선발하여 4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회 試講하고, 매월 1회 製述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³⁾ 이 제도는 集賢殿 賜暇讀書制, 讀書堂 제도를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經과 史를 강론하는 ‘講’과 문체별로 작문하는 ‘製’로 3년간 재교육하는 제도이다.

초계문신 제도는 정조의 정치 이념을 확산하고 정치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제술의 부과는 초계문신의 학문 진작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면이 있었다. 본고는 이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조의 세손시절 시문 학습

정조는 영조 35년(1759) 세손에 책봉되었다. 영조 37년(1761) 3월 정조는 성균관에 입학했다. 이 때 서명응(徐命膺)이 입학식을 주관했다. 이듬해(1762년) 생부 장헌세자가 서거하자, 요절한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의 후사가 되어 왕통을 이었다. 영조 41년(1765), 세손 정조는 이미 경학에 통달했다는 영조의 평을 들었다.⁴⁾ 영조 48년(1772) 3월 서명응은 세손우빈객을 겸하면서 정조의 교육을 전담했다. 정조는

2) 정조는 세손 시절 빈객에게 보낸 서찰에서 역사를 퇴보로 보는 잔양 관념을 강하게 부정했다. 북송 소옹(邵雍, 1011~1077)의 퇴행적 역사관을 비판한 것이다. “일찍이 소자(邵子, 소옹)의 ‘요순당오(堯舜當午)’ 구절을 읽어 보았는데, 이것이 비록 천지(天地)의 원회(元會)의 총수(總數)를 가지고 말한 것이기는 하나, 그 사이에는 또한 명암(明暗)과 소장(消長)의 상충적인 작용이 있는 것인데, 어찌 오(午)를 지난 하늘이라서 모조리 잔양(殘陽)에 붙여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고도(古道)를 만회시킨다면 천지가 의당 다시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당(漢唐) 시대에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행하지 않았고, 송나라 중엽 이후에 이르러서는 아랫사람이 그것을 알았으나 윗사람이 행하지 않았으니, 어찌 한스럽지 않겠습니까?” 심경호, 「정조의 문체정책과 제술 부과」, 『진단학보』 127, 진단학회, 2016.12.

3) 『정조실록』 정조 5년 2월 경신 ; 『奎章閣志』 再草本(정조 5년 간행), 『文臣講製節目』, 『奎章閣志』 완성본(정조 8년 간행).

4) 『정조실록』 영조 41년(1765) 8월 17일. “命王世孫侍坐, 問『書經』文義, 命繼講『詩傳』. 教曰: 世孫年未弱冠, 已通四書二經, 不亦嘉乎!”

영조 51년(1775) 대리청정을 하다가, 이듬해 1776년 영조의 서거 후 왕위에 올랐다.

세손 정조는 소대와 서연은 물론, 서찰 왕복을 통해 학문을 연마했다. 『홍재전서』 제3권 춘저록(春邸錄) 3에는 ‘서(書)’가 수록되어 있는데, ‘답빈객(答賓客)’이라고만 되어 있고, 빈객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다.⁵⁾ 어떤 서한에서는 ‘나(懶)’를 스스로 경계하는 뜻을 드러냈다. 빈객은 “사백사병(四百四病)이 모두 마음 하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조는 “천하만사가 모두 하나의 나(懶)자로부터 무너진다.”는 이치를 말했다. 사백사병은 불가어로, 인간의 오장에 각각 81종의 병이 있어 모두 405종의 병이 되는데, 죽음[死]을 빼면 404종의 병이 된다고 한다. 정조는 제왕가의 실천 공부는 ‘성경(誠敬)’에 있다고 보고, 깊이 들어앉아 조양(調養)하니 마음과 생각이 모두 맑아져서 시원하게 자득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하면서, 옛사람의 이른바 ‘청심요방(淸心要方)’이란 말을 믿게 되었다고 했다.

세손 정조가 17세 되던 영조 44년(1768, 무자) 7월 초4일 시강원의 소대에서 김중수(金鍾秀)는 무더위 때 민간에서는 행문과 서책을 보기 어렵다고 해서 시가(詩歌)를 보고 읽기도 하지만, 시가에 눈을 주지만 하면 정에 끌리고 쉬우며 탐독하게 되면 해악이 크다고 했다. 북송 때 사양좌(謝良佐, 上蔡)가 사서(史書)를 익숙하게 외우자 정이(程頤)는 그것을 완물상지(玩物喪志)라고 꾸짖었으니, 감계의 기능을 지닌 사서에 대해서도 그러하거늘 시율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고 했다.⁶⁾ 정조는 성철(聖哲)에 이르고자 성(誠)과 실(實)을 다하고, 사장지학(詞章之學)이나 기문지학(記問之學)에 골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⁷⁾

같은 해 8월 25일 시강원 소대에서 김중수는, 앞서 시율의 일을 진계한 것은 아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탐착(耽着)에 이르지 않도록 경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리고 세손의 공부가 요순(堯舜)같은 성군이 되겠다는 뜻을 키우는 입지(立志)에 실효가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사마광(司馬光)이 ‘평생 내가 한 일을 남에게 말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을 제목으로 삼아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조는

5) 正祖, 「答賓客」, 『弘齋全書』卷3 春邸錄3 ○書.

6) 金鍾秀, 「春宮侍講日記」, 『夢梧集』卷之三 講義. “賤臣曰：雖以梁冀事見之，小人欲專權柄，則雖同氣之親，亦忌之，蓋慮其分奪吾之權也。歷代奸凶，雖父子兄弟，各立門戶，互相猜剋者多，如蔡京事，可謂倫理滅矣。令曰：然矣。賤臣曰：昨筵，臣敢仰問燕居所閱書籍，則以盛暑中行文書冊尤難看爲教，臣於其時，欲陳區區之見，而緣夜深退出矣。盛暑難看行文，誠如睿教，故閭巷人則盛暑看讀詩歌者多矣。然帝王之學，異於匹夫，詩律之類，極涉不緊，偶然寓目以爲忘暑之資，則雖似無害，然此等文字一寓目最易牽情，倘或一向耽着[*看]，則其害不細，謝上蔡誦史書甚熟，程子尚以玩物喪志責之，史書則鑑戒古今國家成敗，人物賢邪，亦不爲無益，而程尚責之，況如詩律之類，其爲玩物喪志，非史書之比，伏乞留念焉。令曰：當體念矣。”

7) 正祖, 「答賓客」, 『弘齋全書』卷三 春邸錄三 書.

성철(聖哲)이 되라고 권면한 말을 수납하면서, 성현을 배우는데 성(誠)과 실(實)을 다 하리라는 다짐을 했다.⁸⁾

훗날 정조는 자신이 한 때 시를 무척 좋아했으나 작시가 공부에 해가 된다고 여겨 혼념을 쏟지는 않게 되었다고 거듭 밝혔다.

내가 젊었을 적에 시를 무척 좋아하여 『시경』 삼백 편으로부터 송명의 제가에 이르기까지 그 율타리를 엿보며 아름다운 구절을 주워 모았고, 더러는 작자의 필의(筆意)를 보아 그 오묘한 뜻을 깨닫기도 했다. 그러다가 곧 이로운 없고 공부에 해만 끼친다고 생각하여 일절 포기한 지가 이제 20여년이 되었다. - 『일득록』 문학4, 임자(정조 16, 1792) 서영보 기록.

내가 요즈음은 시를 지을 때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그저 손 가는 대로 써 내려갈 뿐이다. 『춘저록』을 한번 보았더니 순아(醇雅)하고 풍채(風采)와 정치(情致)를 갖추어서 근래의 작품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 『일득록』 문학4, 임자(정조 16, 1792) 서영보 기록.

하지만 정조는 동궁 시절 작시 공부를 착실하게 했다.

정조는 세손 시절 빈료들에게서 경학을 배웠지만, 빈료들과 연구(聯句)도 즐겼다. 제주도에서 공과(貢果, 귤)가 이르러 와서 반궁(성군관)에 황감제(黃柑製)을 시설할 무렵에 정조는 「또 빈료들과 연구를 읊다[又與賓僚聯句]」를 지었는데, 빈객 서명응(徐命膺)과 춘방(春坊) 이진형(李鎭衡)·이승호(李崇祐)·일명씨·오재소(吳載紹)의 이름을 거명했다.⁹⁾ 일명씨는 곧 홍국영일 가능성이 높다. 세손은

조공 바친 귤이 멀리 한라 고을에서 왔는데	厥包遙自漢挈鄉
금색 보자기에 봉해 오니 누런빛 일색이로다	金帕封來一色黃

라고 했는데, 서명응과 이진형의 축언을 이어 이승호는

거친 지식은 집현전 학사 아님이 부끄럽고	鹵學慚非賢殿士
동궁의 시는 참으로 현릉의 시에 걸맞도다	離詞允協顯陵章

8) 正祖, 「答賓客」, 『弘齋全書』 卷三 春邸錄三 書.

9) 正祖, 「又與賓僚聯句」. [賓客徐命膺, 春坊李鎭衡, 李崇祐, 缺, 吳載紹], 『弘齋全書』 卷2 春邸錄2 ○ 詩.

라고 했고, 일명씨는

특별한 은혜로 향설이 쌓인 걸 다투어 보노니 爭看異渥堆香雪
웅숭한 포양이 날강에 미침을 입기가 부끄럽네 媿荷隆褒及稊薑

라고 했다. 날강(稊薑)은 말을 과감하게 하는 직신(直臣)을 뜻한다. 송나라 때 진회(秦檜)가 금나라와의 화의를 주장할 때 간관(諫官) 안돈복(晏敦復)이 강력하게 정쟁(廷爭)을 하므로, 진회는 사람을 시켜 그에게 자기의 주장을 따라 주도록 권했다. 하지만 안돈복은 “강계의 성질은 늙을수록 매워지는 것이니, 다시 말하지 말라.[薑桂之性, 到老愈韃, 請勿言]”고 했다고 한다. 일명씨는 스스로를 직신으로서 자기 규정한 것이다.

정조는 17세 되던 영조 44년(1768)부터는 어제를 신하들에게 내리고 갱재(賡載)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왕세손은 시강관 겸필선 서호수(徐浩修), 겸사서 김기대(金基大)와 『시경』을 강하다가, 마침 단비가 내리자 「희우시(喜雨詩)」를 지어 두 사람에게 내리고 갱재를 요구했다. 서호수는 동궁의 시를 집으로 가져가 부친 서명응(徐命膺)에게 보여 서문을 받았다. 「존현각희우시서(尊賢閣喜雨詩序)」가 그것이다.¹⁰⁾ 서명응은 “인효가 일찌감치 드러난 것은 정말로 저하가 본디 지니시고 계신 품성이었지만, 성물이 공교하다고는 듣지 못했거늘, 그 오묘한 경지에 도달한 것이 이와 같으니, 정말로 땅에 흐르는 물이 있고 솟아난 산이 있으며 풀이 있고 나무가 있어서 땅에 문장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늘에 해가 떠 있고 별이 반짝이며 은한이 흘러가기에 하늘에 문장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만하다.”¹¹⁾라 칭송했다. 그 이전에는 세손 정조가 시를 신하들에게 보여준 일이 없었던 듯하다.

또한 정조는 서화공돌과 원예를 즐겼다. 23세 되던 영조 50년(1774)에는 태호석을 구하여 창문 앞에 약관(藥罐)·향구(香甌)·문왕정(文王鼎)·선덕로(宣德爐)와 더불어 엄연하게 나란히 배열해 두고 감상했다. 그리고 「태호석기(太湖石記)」를 지어, 자신이 태호석을 완호하는 것은 탈속적이자 심미적 취향에서 비롯되는 ‘소인묵객의 완호’와 달리, 인지(仁智)의 학이 우러나온 결과라고 변명했다.¹²⁾ 정조는 시학에 탐

10) 徐命膺, 「尊賢閣喜雨詩序」, 『保晚齋集』 卷7. “上之四十有四年, 戊子仲夏, 春宮邸下, 講詩經於尊賢閣, 侍講院兼弼善臣徐浩修·兼司書臣金基大侍焉. …… 時久無雨, 忽有聲, 颯爽於林端, 滴瀝於簷角, 須臾沛然, 川渠溝瀆皆滿, 邸下色喜. 及二人者退, 書下近體喜雨詩二篇于二人者, 令各和進. 二人者各賦二篇獻之, 而浩修懷簡, 歸家示其父命膺.”

11) 夫仁孝夙彰, 固邸下之所有, 而未聞以聲律爲工, 乃今臻其妙如此, 信乎流峙草木于地而地不能不文章也, 日星河漢于天而天不能不文章也.

낙하거나 골동기호의 물품에 상지(喪志)하지 않도록 주의했지만, 젊어서 심미적 성향을 지녔던 것은 분명하다.

3. 정조의 현실개혁 모색과 제술 중시의 연관

정조는 “문장이 한낱 기예라고는 하지만 이것에 잠심(潛心)하여 바깥일이 없을 수 있으면 사람의 심지(心志)를 검속(檢束)하고 지려(智慮)를 보익하여 위의동작(威儀動作)을 단정히 하고 조심하는 효과가 있다”고 여겼다. 또한 조선의 지배체제와 사고양식은 송나라의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주자학과 고문이 가장 우리 문화에 적합하다고 여겼으며, 명·청의 문집은 조회(藻會)만을 일삼아 볼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재위 8년(1784) 삼월삼일의 삼일제(三日製)에서는 「문체(文體)」라는 책체를 내걸어, 문체가 세상의 치릉(治隆)에 관계있으므로 문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했다. 다시 재위 13년(1789) 초계문신 친시에서 「문체」라는 책체를 내어, 명말청초의 소품문을 비판했다. 정조는 경전의 세계에 뿌리를 내린 ‘뒤에 전할 글’ 혹은 ‘세상에 소용되는 글’이 폐기된 것을 개탄했고, 당시의 문체는 대소사명(大小詞命)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다. 정조는 문체의 개선을 위해 『팔자백선』, 『주자서』, 『육선공주의』, 『시관』, 『아송』, 『두울분운』, 『육울분운』 등 의미 있는 서적들을 어정, 어명 편찬했다.

정조는 홍문관에서 관장하던 경연의 임무를 규장각으로 이관하여 학문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비서실의 기능과 문한(文翰)의 기능, 사관(史官)과 시관(試官)의 역할, 정책 입안을 위한 참고도서의 수집·소장, 서적의 간행을 일임했다. 또한 규장각 관리인 각신(閣臣)을 청직(淸職)으로 격상시켜 친위세력을 형성했다. 그리고 37세 이하의 젊은 관료들을 초계하여 재교육시켰다. 그런데 정조는 초계문신들에게 강경과 함께 제술을 강조했다. 정조 5년 4월 16일, 『절목』 가운데 월강(月講)은 매달 순전(旬前)과 망후(望後) 2차 설행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았다.¹³⁾ 4월 18일, 초계문신 강제(講製)는 친림(親臨)이든 시관시취(試官試取)이든 전경강(專經講)과 문신제술(文臣製述)의 예에 따라 청주서(廳注書)와 하번 한림(下番翰林)은 입참(入參)하지 말도록 했다.¹⁴⁾ 또한 초계문신 제술 때에는 승지 한 사람만 입시하게 했다. 정조 5년 4월 4일

12) 『홍재전서』, 제4권, 「춘저록(春邸錄)」 4, 「태호석기(太湖石記)」 갑오년(1774).

13) 『승정원일기』 정조 5년 4월 16일.

14) 『승정원일기』 정조 5년 4월 18일.

23일(병인) 승지 채홍리(蔡弘履)를 소견하고, “초계문신의 제술의 방(榜)은 공도(公道)라고 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외부에서 차작(借作)하지 말라는 뜻으로 신칙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 정조 5년 5월 초2일 초계문신 친림제술의주(親臨製述儀注)가 제정되었다.

정조는 규장각 초계문신만이 아니라 문신, 승지,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책제(策題)를 부과한 것이 많다. 정조는 당시의 대책문이 꾸미기만 하여 실용성이 결핍하고, 폐단에 대한 지적과 정치를 위한 제안도 진부한 이야기로 구성해 놓으며, 성경(誠敬)이나 도덕(道德)에 관해서도 고정된 투식에 맞추기만 한다고 개탄했다.¹⁵⁾

정조는 재위 13년(1789, 기유) 윤5월에 내각(규장각)의 초계문신들과 각신들을 대상으로 지세(隆勢)에 관한 책문을 내어 시험했다.¹⁶⁾ ‘隆’는 ‘地’와 같은 글자이다.

정약용은 이때 대책을 제출해서 어비(御批)로 수위를 차지했다. 『여유당전서』에 전하는 「지리책」이 바로 그 대책이다.¹⁷⁾ 당시 초계문신이었던 이가환(李家煥)¹⁸⁾과 규장각 각신 이만수(李晩秀)¹⁹⁾ 등의 대책도 현재 전한다. 이만수에 따르면, 내각의 각신들은 당시 정조가 선정한 『오경백선(五經百選)』을 교정하여 인쇄하여 올리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이 대책을 받았다고 한다.²⁰⁾ 정조는 지리학을 중시해서, “곤도(坤道)가 땅의 모양을 형성함에 높고 낮은 것이 자연의 이치가 있으므로, 광륜(廣輪 : 땅의 넓이)을 알고 오물(五物)을 분간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지리학(地理學)이 생기게 된 것이다.”라고 했다. 지리라는 말은 본래 『주역』 「계사(繫辭)·상」에서 “천문을 우러러 보고 지리를 굽어 살핀다[仰以觀於天文, 俯以察於地理]”는 구절에서 토지와 산천 등의 환경 형세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공영달(孔穎達)은 『소(疏)』에서도 “땅의 산천과 벌판, 습지는 각각 조리(條理)가 있으므로 리(理)라 일컫는다.”라고 했

15) 正祖, 『弘齋全書』 卷161 日得錄1 文學1. 檢校直提學臣徐有防乙巳錄.(1785년). “近日抄啓對策見之乎? 文章識解, 非無可取, 而但所貴乎策者, 欲見其逐條與揀措也. 古則虛頭中頭, 初不費力, 專以逐條之善對, 揀措之敢言, 爲高下. 近來體段一變, 徒事雕繪, 皆乏實用. 至於揀措, 預構陳腐之談, 要無筭著之處. 誠敬道德, 自有一副圈套.”

16) 正祖, 『弘齋全書』 卷50 策問3 「지세(隆勢)」; 한국고전번역원 역.

17) 丁若鏞, 『여유당전서』 제1집 권8 對策 「지리책」; 한국고전번역원 역.

18) 李家煥, 『錦帶殿策』 「지리책」; 정선용 옮김, 『국역 금대전책』(국립중앙도서관, 2011), pp.74~119.

19) 李晩秀, 『履園遺稿』 卷60 오경백편답성문(五經百篇答聖問).

20) 정조의 「지리책」에 관한 현전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정조, 『홍재전서(弘齋全書)』 제50권 책문(策問) 3 「지세(隆勢)」; 한국고전번역원 역;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제8권 대책(對策) 「지리책」; 한국고전번역원 역; 이가환, 『금대전책(錦帶殿策)』 「지리책」; 정선용 옮김, 『국역 금대전책』(국립중앙도서관, 2011), pp.74~119; 이만수, 『극원유고(履園遺稿)』 제60권 오경백편답성문(五經百篇答聖問).

다. 『한서』 「교사지(郊祀志)하」도 “삼광(三光)은 천문이고 산천은 지리이다.”라고 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나 한 지역의 산천, 기후 등 자연환경에서부터 물산, 교통, 거주민 등 사회경제 요소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정조가 지리학에 관심을 둔 것은 우리나라 강역이 안정되고 물산이 풍부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해서였다. 정조는 책문에서 지리학이 생기게 된 근원과 중국의 지리에 대해 개괄한 후 우리나라의 역사지리에 관해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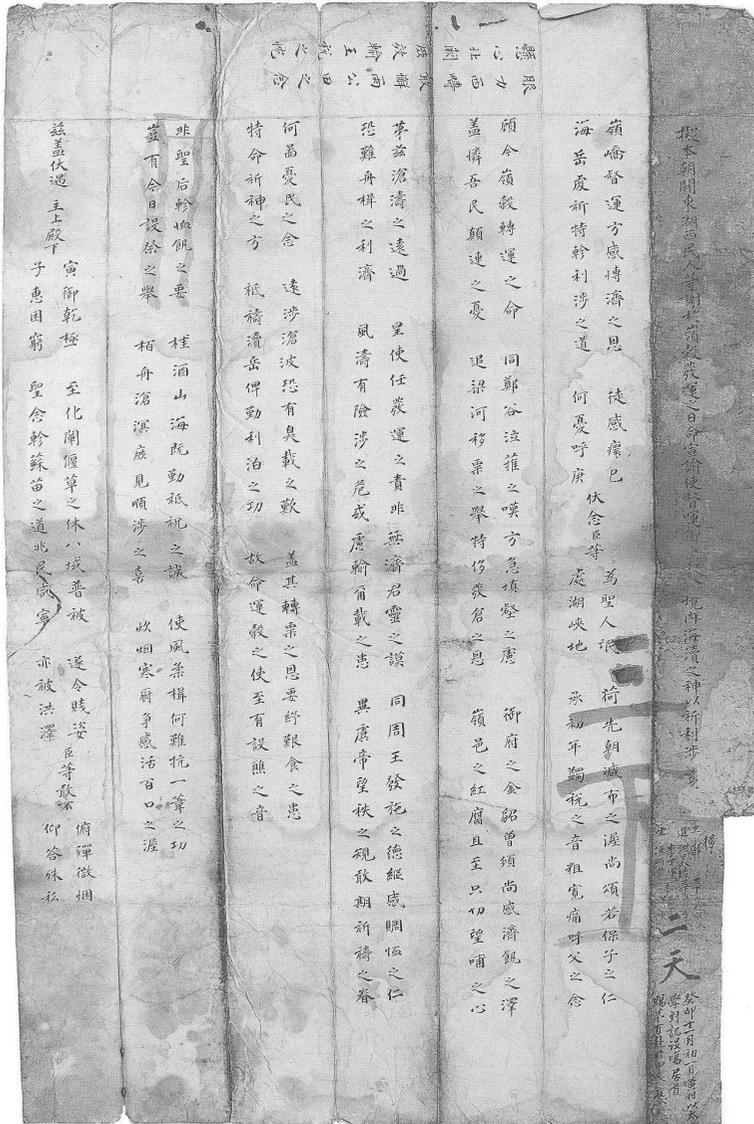


그림 1. 정동신(황감제시권)1783(정조7)

어째서 근래에 들어 사람들은 지리가 정치의 근본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여, 관문의 방비는 허술하다는 탄식이 많고, 성곽과 성지는 수선하는 효과가 없으며, 서울을 보호하는 주목의 병권은 묘당의 의논이 진퇴가 무상하고 강화도의 통어(統禦) 제도는 중론의 가부가 한결같지 않느냐? 울릉도와 손죽도(損竹島)는 오래도록 무인도로 버려졌고, 여연(閔延)과 무창(茂昌)은 아득히 옛 군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서는 조정에서 이익을 독점하는 정사가 없는데 어염(魚鹽)은 더욱 귀하여지고, 팔도에 광물을 채취하는 관리가 없는데 금과 은은 점점 고갈되어 간다. 인재의 강등과 습속의 효잡함은 아마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이 모든 몇 가지 사안을 편리하게 바로잡고 구제하는 방책을 자대부가 아니면 누구에게 자문하겠느냐.

정조는 울릉도와 손죽도가 공도 정책에 대해 득실을 묻는 등 현안을 제시했다. 울릉도를 거론한 것은 홍봉한(洪鳳漢)이 1768년(영조 44) 다시 영의정이 되어 울릉도의 사적을 널리 조사하여 책을 만들어 일본인들의 점유를 미리 막게 한 뜻을 계승한 듯하다. 정조는, 명산과 지산(支山)의 분맥(分脈), 강물의 원류와 하류 등을 그림으로 그리고 기록으로 나타낸 뒤에야 그 토질을 구별하고 이해(利害)를 알아서 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 있고 교화를 닦을 수 있다고 한다고 여겼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역대로 지리(地理)에 뜻이 있는 이들이 여러 지리서를 남겼지만 우리나라 선비들은 명물(名物)의 학문에 소홀하여 지리서로는 『여지승람(輿地勝覽)』과 『문헌備考(文獻備考)』 등 1~2종류에 불과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정약용은 대책(對策)에서, 우리나라가 산을 짙어지고 바다에 둘러싸였으므로 지리가 험고하고, 중국 제도를 이용하여 오랑캐의 풍속을 변화시켜 문물이 찬란하므로 소중화라고 불러도 당연하다고 하여, 우리나라 국토의 지리적 이점을 자부했다. 그리고 국가의 지리는 구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명일통지』나 『동국여지승람』이 시문을 집성한 유서(類書)의 성격을 띠었던 것을 비판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천·풍속과 관방(關防)·토산물 등의 다른 점이나, 성조(聖朝)의 계책·공렬(功烈)과 조치(措置)·제작(制作) 등의 훌륭한 점”을 모두 개괄하는 지리서를 편찬할 것을 제안했다. 정약용은 발해의 역사를 민족사의 일부로 간주하여, 대조영이 부여·옥저·조선 땅들을 차지하여 국토가 사방으로 수천 리나 되었으나 요나라가 발해를 멸망시킨 후로 압록강 이북 지방이 요나라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 버린 사실을 한스럽게 여겼다. 그러면서 당시의 지방행정 제도와 국경 수비 정책의 미비점을 살펴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해서, 당시 팔도를 구분함에 있어 경기(京畿)만 피폐해 있다는 점, 진(鎭)이나 보(堡)의 제도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²¹⁾

정조는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방향을 읽고, 각 분야의 혁신에 필요한 방법을

모색했다. 군주가 승유중도의 이념을 각 방면에서 실천한 것은 국체의 안정을 도모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면서도, 현실인식의 평면화, 지향이념의 협소화, 문화 규모의 왜소화, 학문방법의 고답화를 초래할 우려도 있었다. 따라서 인식, 지향, 규모, 방법은 제왕 정조의 정치와 학술사상을 고찰할 때 주목해야 할 핵심 키워드이다.

재위 14년 경술(1790, 건륭 55) 4월 24일(갑술), 정조는 초계문신 과시(課試)의 시권을 채점했다.²²⁾ 과시는 전(箋)의 문체를 부과했고 제목은 「본조의 초계문신 등이 강경(講經)에서 불(不)을 맞고 제술(製述)에서 외(外)를 맞은 죄를 다스리지 않고 특별히 수문장에 차임하여 낮에는 문을 지키고 밤에는 독서하게 한 데 대해 사례하는 것으로 의작하라[擬本朝抄啓文臣等 謝不治講不製外之罪 特差守門將 使晝監門夜讀書]였다. 부사과 송상렴(宋祥濂)·윤영희(尹永禧), 전 검열 정약용이 삼하(三下)로 등급이 똑같았으므로, 정조는 비교를 명했다. 세 사람은 네 번에 걸쳐 비교의 제술을 해야 했다. 문체는 모두 전(箋)이었다. 정조의 어제(御題)는 각각 다음과 같았다.

재시 「본조의 내각에서 『일득록』을 올리는 것으로 의작하라[擬本朝內閣 進日得錄]」 세 사람 모두 차상(次上)

3시 「본조 묘당의 신하가, 여러 도의 환곡을 가지고 산간 고을에서 모아주고서 연해 고을에 보태주는 정사를 행하여 탐오의 풍조가 점차 종식되고 민폐가 제거되게 하도록 청하는 것으로 의작하라[擬本朝廟堂臣 請以諸道還穀 行寰峽益沿之政 俾貪風稍息民弊祛甚]」 세 사람 모두 삼하(三下)

4시 「본조의 묘당이, 금위영과 어영청 두 영에서 보미를 함부로 받는 것을 금하여 6두를 바친 자로 하여금 원래의 정식 외에 더 바쳐 절제가 없게 되는 고질적인 폐단을 면하게 하기를 청하는 것으로 의작하라 [擬本朝廟堂 請禁兩營保米濫捧 使六斗納者 得免元式外加納無節之積弊]」 세 사람 모두 차상(次上)

5시 「본조의 초계문신 등이, 과제에서 백성과 국가에 보탬이 되는 경제 관련 글을 시험하고 과강 때에 한자의 중국 음을 간간히 시험하기를 청하는 것으로 의작하라 [擬本朝抄啓文臣等 請於課製試經濟文字之有補於民國者 課講間試華音]」 세 사람 모두 차상(次上)

비교시의 네 어제들을 보면 정조의 현실인식과 학문 및 정치의 지향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21) 정약용, 『여유당전서』 제1집 제8권 대책(對策) 「지리책」; 한국고전번역원 역.

22) 『일성록』 정조 14년 경술(1790, 건륭 55) 4월 24일(갑술) 조항. 한국고전번역원 제공 번역문 참조. 이하 『일성록』의 번역문 인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한국고전번역원 제공의 번역문을 이용함.

첫째, 정조는 자신의 통치 행위를 반성하기 위해 내각(규장각) 각신들에게 『일득록』을 충실하게 편찬하도록 요구했다. 『일득록』은 구술을 토대로 작성하는 『일성록』이나 승정원에서 기록을 담당하는 『승정원일기』, 규장각에서 작성하는 일지 『내각일력(內閣日曆)』 등과 서로 보완의 관계에 있으면서, 함께 어우러져 통치의 거울을 이루었다.

둘째, 산간과 연해 고을의 빈곤을 구제하려면 환곡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구체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고자 했다.

셋째, 보미(保米)를 여섯 말로 확정하여 군비를 확보하고 수령의 남징을 억제하여 군사 제도를 안정시키고자 했다.

넷째, 과제(課製)에서 경제에 관한 글로 백성과 국가에 보탬이 되는 것을 시험하여 문학의 실용성을 높이는 한편, 과강(課講)에서 한자의 중국 음을 함께 시험해서 경문의 원의를 이해하는데 활용하게 하고자 했다.

4. 정조의 제술 중시가 지닌 부정적 측면

재위 14년 경술(1790, 건륭 55) 4월 24일(갑술), 초계문신 과시(課試)의 어제(御題)를 보면 정조는 주로 현실정치의 당면 문제를 풀어나갈 방안을 초계문신들에게 검토하도록 촉구했다. 하지만 전(箋)이란 문체로 답안을 제출하도록 시킨 것은 실질 방안을 청취하는 데는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전이란 문체는 대우(對耦)·평측(平仄)·용전(用典) 등 형식적 요건이 구체적 내용을 담을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실상, 정조의 제술 부과가 반드시 문체의 변혁에 도움이 된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일성록』의 정조 14년 경술(1790, 건륭 55) 6월 4일(계축) 조항에 정조가 두 달의 초계문신 친시(親試) 시권(試券)을 고하(考下)했다는 기록이 있다. 거오월친시(去五月親試) 어제(御題)는 표(表) 「당나라 염입덕이 봉선도를 올린 일에 대해 의작하라 [擬唐閻立德進封禪圖]」, 유월친시(六月親試) 어제(御題)는 표(表) 「주나라의 못 신하들이 굽은 언덕에서 놀며 노래하던 날에 소강공이 「엄중하고 존엄하여 둥근 옥과 같고 반이 둥근 옥과 같아 좋은 소문과 좋은 명망이 있으니 화려한 군자를 사방에서 버리로 삼으리라」고 노래한 악장을 왕에게 올린 것을 하례하는 것으로 의작하라 [擬周群臣賀於游歌卷阿之日召康公以顛顛印印如圭如璋令聞令望豈弟君子四方爲綱之章進于

王]였다. 재가어진(在家製進)한 것이다. 5월 친시에서는 이기경(李基慶)·송상렴(宋祥濂)·정약용(丁若鏞)·윤영희(尹永禧)·유한우(俞漢寓)가 외삼하(外三下)로 동급. 6월 친시에서는 송상렴이 삼하로 거수(居首)했다. 승지 서형수(徐滢修)가 아뢰기를, “친시 응제(應製)는 사체가 얼마나 근엄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초계문신 심능적은 시권을 봉한 안팎에 모두 ‘신(臣)’ 자를 쓰지 않았고 직명도 써넣지를 않았으니, 그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소홀히 한 것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입직한 각신이 흐리멍덩하게 봉입(捧入)한 것도 크게 살피지 못한 것이니 엄하게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심능적은 엄하게 감처해야 할 것이나 본원(本院)이 추고하기를 청하는 것 외에는 달리 시행할 만한 벌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여, 윤희하고 전교하기를, “심능적은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하여 구초(口招)를 받게 하라.” 했다. 내각이 아뢰기를, “친시의 시권 가운데 부사과 김희순(金羲淳)은 비봉(秘封)에 ‘제진(製進)’ 2자를 쓰지 않았고, 가수문장(假守門將) 윤인기(尹寅基)는 시권의 자획(字畫)이 단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가수문장 이동면(李東冕)은 직함을 부사정으로 썼습니다. 막중한 응제의 문자 중에 이처럼 대단히 잘못 쓴 것이 있으니 모두 매우 놀랍습니다. 해당 세 문신을 엄하게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희하고 전교하기를, “이 계사(啓辭)는 옆구리 찢러 절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그대도 추고 하겠다.” 했다.

염입덕(閻立德)은 아우 염입본(閻立本)과 함께 가업을 이어받아 그림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정관(貞觀) 초에 대안현남(大安縣男)으로 봉해지기도 했다. 그의 그림 중에 봉선도(封禪圖)가 있는 것으로 전해질 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²³⁾ 그런데도 정조는 표제로 삼았다. 한편 ‘엄중하고 존엄하여 둥근 옥과 같고 반이 둥근 옥과 같아 좋은 소문과 좋은 명망이 있으니 화려한 군자를 사망에서 버리로 삼으리라’는 『시경(詩經)』 「권아(卷阿)」에 나오는 내용으로, 소강공(昭康公)이 성왕(成王)을 경계시키기 위해서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다. 실제 사실을 고찰할 수가 없어, 『시집전』의 해석에 의거해서 찬송의 언사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조 14년(1790, 경술) 4월 24일(갑술), 규장각 초계문신들은 「본조의 초계문신 등이 강경(講經)에서 불(不)을 맞고 제술(製述)에서 외(外)를 맞은 죄를 다스리지 않고 특별히 수문장에 차임하여 낮에는 문을 지키고 밤에는 독서하게 한 데 대해 사례하는 것으로 의작하라.[擬本朝抄啓文臣等 謝不治講不製外之罪 特差守門將 使畫監門夜

23) 『舊唐書』 卷77 「閻立德列傳」; 『御定佩文齋書畫譜』 卷46 畫家傳 閻立德; 『圖書見聞誌』 卷1 叙圖書名意.

讀書]”로 전제(箋題)를 삼아 응제했는데, 부사과 송상렴(宋祥濂)·윤영희(尹永禧), 전 검열 정약용(丁若鏞)이 삼하(三下)로 등급이 똑같았다. 비교(比較)에서 「의본조내각신진일득록(擬本朝內閣臣進日得錄)」이란 제목의 전(箋)을 작성했는데, ‘경술각과(庚戌閣課) 일천차상(一天次上) 전검열(前檢閱)’ 정약용이 작성한 글이 남아 있다.²⁴⁾ 이때 송상렴·윤영희·정약용이 모두 차상(次上)이었으므로, 또 비교를 했고, 이들의 점수가 같았으므로 여러 차례 다시 비교를 했다.²⁵⁾ 정약용이 남긴 「의본조내각신진일득록전(擬本朝內閣臣進日得錄箋)」은 다음과 같다.

惟后克艱厥后, 方懋典學之表,
日聞其所不聞, 敢效獻書之悃,

日有得也,
豈無補云,

恭

治具畢張,
道光奎壁,

名山簡策, 既存時政記秘藏,
內府絲綸, 更許『日省錄』昭載,

念我后日用言語,
惟閣僚朝夕承聆,

24) 丁若鏞, 「本朝內閣臣進日得錄」, 『與猶堂全書』補遺○冽水文叢 中.

25) 송상렴·윤영희·정약용이 모두 차상(次上)이었으므로 또 비교를 했는데, 어제는 “글제는 ‘본조 묘당의 신하가, 제도의 환곡을 가지고 산간 고을에서 모아 연해 고을에 보태주는 정사를 행하여 탐오하는 풍조가 점차 증식되고 민폐가 제거되게 하도록 청하는 것으로 의작하라.[擬本朝廟堂臣 請以諸道還穀 行衰峽益沿之政 俾貪風稍息民弊祛甚]’, 문체는 전.”이었다. 송상렴·윤영희·정약용이 모두 삼했으므로, 또 비교할 것을 명했다. 어제는 “글제는 ‘본조의 묘당이, 금위영과 어영청 양영에서 보미를 함부로 받는 것을 금하여 6두를 바친 자로 하여금 원래의 정식 외에 더 바쳐 절제가 없게 되는 고질적인 폐단을 면하게 하기를 청하는 것으로 의작하라.[擬本朝廟堂 請禁兩營保米濫捧 使六斗納者 得免元式外加納無節之積弊]’, 문체는 전.”이었다. 송상렴·윤영희·정약용이 모두 차상이었으므로, 또 비교할 것을 명했다. 어제는 “글제는 ‘본조의 초계문신 등이, 과제에서 경제에 관한 글로 써 백성과 국가에 보탬이 되는 것을 시험하고 과강할 때에 한자의 중국 음을 시험하기를 청하는 것으로 의작하라.[擬本朝抄啓文臣等 請於課製試經濟文字之有補於民國者 課講問試華音]’, 문체는 전.”이었다. 송상렴·윤영희·정약용이 모두 차상으로 등급이 똑같았다.

推外王內聖之工，猗咳唾莫非珠玉，
隨左史右記之職，幸掇拾多得英華，

性道文章，雖非蠡測上可盡，
討論薰炙，不無燕漢中參聞，

斯取心得之餘，
各有手錄之字，

得一言眷眷不忘，受焉藏之，
使百世班班可攷，書庸識也。

鄉黨畫出之妙，縱不能形容聖人，
考亭『語類』之編，亦足以羽翼吾道，

肆將汗竹之新帙，
冀諒獻芹之微誠，

昨一善今一難，自然有得，
記其事提其要，不可無傳，

滄海珠珍，可見千人之往探，
上天星日，敢曰七分之二依慕，

顧茲漢門朝奏之書，
竊仰湯盤日新之德，

蓋臣職密邇軒陛，得聞瓊廈之緒論，
故聖學得窺門牆，粗效筆硯之繕寫，

謙虛太過，縱嫌一字之揄揚，
悅慕方深，寧使片言之遺佚？

盥手之日，
稽首于天，

念

職忝聚奎,
學慚坐井,

潛心四部, 縱愧唐弘文說經,
藉手一編, 庶副宋天章給札,

이 전(箋)에는 어고(御考)가 있었으나, 『여유당집』 보유의 『열수문황』에는 그 내용을 옮겨 적어두지 않았다.

정약용은 정조 20년(1796) 12월 25일(병신) 『어정사기영선(御定史記英選)』이 이루어지고, 왕명으로 그 음과 뜻을 밝히기 위해 극히 간략한 주를 붙인 후 「본조곡산부사정용진사기영선찬주(本朝谷山府使丁鏞進史記英選纂注)」라는 제목의 전(箋)을 작성했다.²⁶⁾ 정약용은 「규영부교서기(奎瀛府校書記)」에서는 이익진(李翼晉), 박제가(朴齊家)와 함께 『사기(史記)』를 교정하던 일을 두고 제우(際遇)의 성사(盛事)를 칭송했고, 그 글은 『열수전서』에 수록해서 그것이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에 그대로 수록되었다.²⁷⁾ 하지만 정약용은 「본조곡산부사정용진사기영선찬주(本朝谷山府使丁鏞進史記英選纂注)」는 『열수전서』에 수록하지 않고 ‘후회를 기록하는’ 『열수문황(洌水文簧)』에 남겨두었다.²⁸⁾

경(經)의 권점에 신의를 두시어,
현인과 같아지려는 덕을 흠양하오니
『사기영선』을 산절하고 주해하신 후,
청연(淸燕)의 감림(監臨)을 경하합니다.
천리 멀리까지 마음을 두고
여섯 편 경문에 손을 빌리시니
삼가
좌해(우리나라)에 성인이 나시어
우문(右文)의 정치를 베푸시도다.

26) 丁若鏞, 「本朝谷山府使丁鏞進史記英選纂注」, 『與猶堂全書』補遺○洌水文簧 中.

27) 『與猶堂全書』 제1집 제14권 「奎瀛府校書記」. “嗟乎? 校史記, 非爲書也. 內庫諸本自有, 何用校之. 校史記, 非爲國也. 字畫偏旁之或有訛舛, 於國無害, 何用校之. 校史記爲臣等也.”

28) 과표(科表) 등의 형식에 대해서는 김동석, 『조선시대 시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전공 박사논문, 2013.6 참조.

옥축에 상아 찌로
 교서하는 이들의 선발을 특별히 허락하시고
 진기한 술잔으로 큰 연회를 베푸사
 번번이 감인(監印)의 관리에게 반사하시도다.
 상산(象山) 수령으로 나가는 날을 당하여 ,
 사마천의 『사기』를 찬주(纂注)하나는 명을 받들었으니,
 삼여(三餘)의 때에 교수(校讎)하는 사업을 마치라 하셨기에
 의당 처음을 근실히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도모하오니
 못 신료들이 초창(草創)했던 편장을 이어
 번다함을 산절하고 간략함을 도모하도록 하셨도다.
 구리 인장(수령의 인장)을 차고 멀리 나가매
 구중궁궐을 창망히 바라보며 머뭇거렸도다.
 옥음이 온화하고 순순하시어
 떠들어대는 못사람²⁹⁾을 지도하여 안위하시매,
 여러 텍스트를 늘어놓아 함부로 수윤(修潤)을 가하여
 반년 만에 가까스로 편마(編摩)를 마쳤으니,
 주필(朱筆)에다 묵필(墨筆)에다
 괴롭게도 동각(東閣)에서 온몸에 먼지를 들썩기에,
 동호(彤毫)를 아직 그만두지 않은 사이에
 운월(雲月)을 서청(西淸, 관각)에서 꿈꾸었다.
 주자소에 근무하라는 말씀에 삼가 의지하여,
 반고의 역사서를 산절하고,
 또한 집주(集注)의 여러 설들에 대해 체례를 고찰하였으니,
 모두가 두예(杜預)의 말과 같이 했다.,
 이에 한 부로 이룬 서적을
 멀리 구중궁궐의 맑은 울람에 대비했으니,
 의례(義例)를 모두 따르시매

29) 중휴(衆休)는 『맹자』에서 나온 말이다. 전국시대 송(宋)나라 강왕(康王) 언(偃)이 인정(仁政)을 실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맹자는 송나라를 방문하였다. 송나라의 대부 대불승(戴不勝)은 강왕을 도와 인정(仁政)을 실시해 보려고 설거주(薛居州)를 시켜서 왕을 보필하게 하였다. 맹자가 송나라의 공족(公族)인 대불승에게, 송나라 왕이 정사(政事)를 잘하기를 원하는지 물은 뒤 그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맹자는 대불승에게 초(楚)나라 대부가 자신의 아들에게 제(齊)나라 말을 배우게 하려는데, 제나라 사람을 시켜 가르치는 것이 나은지, 초나라 사람을 시켜 가르치는 것이 나은지를 물었다. 대불승이 제나라 사람을 시켜서 가르치겠다고 답하자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 명의 제나라 사람이 그를 가르치고, 못 초나라 사람이 그에게 떠들어댄다면[一齊人傳之 衆楚人咻之], 비록 매일 회초리로 때리며 제나라 말을 배우기를 요구하더라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맹자는, 설거주가 아무리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송나라 왕과 그 주변 사람들이 따라 주지 않는다면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지(睿旨)에 정말로 의문이 없건만,
 증산(增刪)을 간간이 부쳤기에
 저의 충심에 간혹 오류가 있을지 두려워라.
 동벽(東壁)의 도서(圖書) 저장소에서
 몇 년이나 청광(淸光)에 가까이 했던가.
 서관(西關)은 산수의 고을이라
 이로부터는 산지(散地)에서 우유(優游)하리라.
 경옥같은 봉함을 받들고 눈물을 머금으며
 옥 병풍을 멀리 우러르며 사모의 마음을 내달리노라.
 소송(蘇頌)은 창주(滄州)의 길에 늙으매³⁰⁾
 정말로 천명이 있음을 알겠노라.
 이필(李泌)이 젊어 놀던 곳에 숨으니³¹⁾
 어찌 아니 슬프랴?
 아랫고을에서 우물우물하니
 어이 감히 당나라 궁전의 기둥에 장대한 뜻을 쓰기를 기대하랴?
 남은 생애의 보답은
 한나라 비서각에서 청려장 지팡이에 불을 밝혀 서적을 교감하는 일이오니,
 완성본을 봉하여 올리는 날에
 천안을 우러러 바라보길 마지않노라.
 생각건대
 초기집에 거쳐하는 천한 것이요
 저박(樗櫟)같이 쓸모없는 재목이라
 비록 티끌을 포함하고 하자를 감추어도
 성군의 돌아보심은 구천 하늘이 덮어주는 듯하셔도
 참소를 근심하고 기탄을 두려워하여
 미약한 자취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
- 30) 소송(蘇頌)은 송나라 때의 단양(丹陽) 사람으로 자는 자용(子容)이다. 진사 출신으로 집현전 교리(集賢殿校理)·탁지 판관(度支判官)·우복야(右僕射)·중서문하시랑(中書門下侍郎) 등을 지냈다. 부필(富弼)로부터 고군자(古君子)라는 칭송을 받은 사람이다. 그가 창주지사(滄州知事)로 부임하게 되어 하직차 황제를 배알하자 황제가 이르기를, “짐이 경을 알고 지낸 지는 오래이나 경을 탁용하려고만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겨 탁용을 못하게 되니 그도 아마 운명인가 보다. 앞으로 세월이 가면 경이 곧다는 것이 자연 밝혀질 것일세.” 하였다고 한다. 『宋史』 卷340.
- 31) 당(唐)나라 업후(鄴侯) 이필(李泌)의 집에 장서(藏書)가 많았다고 한다. 한유(韓愈)의 「송제갈각왕수 주독서(送諸葛覺往隨州讀書)」에, “업후의 집에는 책이 하도 많아서, 서가에 꽂힌 것이 3만 축이나 되는데, 하나하나 상아 찌를 달아놓았고, 깨끗하긴 손도 대지 않은 것 같았네. 사람이 박람강기하여, 한번 본 책은 다시 읽지 않는다네.[鄴侯家多書, 插架三萬軸, 一一懸牙籤, 新若手未觸. 爲人強記覽, 過眼不再讀.]”라는 말이 있다. 『韓昌黎集』 卷7.

經圈留神，方仰思齊之德.	神~平 德~仄
『史選』刪注，敢塵清燕之監.	注~仄 監~平
千里懸心，	心~平
六篇藉手.	手~仄
恭	
左海生聖，	聖~仄
右文爲治.	治~平
玉軸牙籤，特許校書人抽閱.	籤~平 閱~仄
珍繡大載，每爲監印官頒宣.	載~仄 宣~平
屬茲象山出宰之辰，	辰~平
猥承馬『史』纂注之命.	命~仄
竣三餘校讎之役，宜謹始而圖終.	役~仄 終~平
聚羣僚草創之章，許刪繁而就略.	章~平 略~仄
銅章遠出，悵九闕而遲徊.	出~仄 徊~平
玉音溫諄，指衆咻而安慰.	諄~平 慰~仄
肆諸本妄加於修潤，	潤~仄
而半歲甫訖於編摩.	摩~平
朱墨相仍，苦塵塗於東閣.	仍~平 閣~仄
彤毫未輟，夢雲月於西清.	輟~仄 清~平
恭依鑄字所之承音，截去班固之史.	音~平 史~仄
又就集注家而考例，皆如杜預之言.	例~仄 言~平
茲將一部成書，	書~平
遙備九重清覽.	覽~仄
義例悉遵，於睿旨是固無疑.	遵~平 疑~平
增刪間附，於愚忱斯恐有誤.	附~仄 誤~仄
東壁圖書之府，幾年密邇於清光.	府~仄 光~平
西關山水之鄉，自此優游於散地.	鄉~平 地~仄
捧瓊函而含淚，	淚~仄
瞻玉辰而馳心.	心~平
蘇頌老滄州之行，固知有命.	行~平 命~仄
李泌匿少游之所，安得不悲?	所~仄 悲~平
下邑棲遑，敢望唐宮之題柱?	遑~平 柱~仄
餘生報答，唯期漢閣之燃藜.	答~仄 藜~平
封進之辰，	辰~平
瞻望不已.	已~仄

念

草茅賤品,

品~仄

樗櫟散材.

材~平

雖含垢匿瑕, 聖眷如九天之覆.

瑕~平 覆~仄

而憂讒畏忌, 微蹤無一日之安.

忌~仄 安~平

정조는 초계문신의 제술만이 아니라 생원과 진사, 유생 시험에서 어제(御題)를 개시하는 일이 많았다. 이를테면 정조 21년(1797, 정사) 6월18일(정해) 도승지 조진관(趙鎭寬)이 어제(御題)의 부제(賦題) 「퇴와 같고 구릉과 같이 되어서 셋이 되기를 바란다[願與岡陵等而爲三]」를 가지고 홍문관 제학과 함께 반궁 비천당(丕闡堂)에서 생원과 진사, 유생에게 시험을 보이고, 449장의 시권을 봉입해 오자, 정조는 편전에서 과차(科次)를 행했다.³²⁾ 직제학 이상을 시관으로 더 차임하고 직각 및 입직한 병조의 낭청, 초계문신을 대독관으로 더 차임하라고 명했다. 어제의 부제는 『시경』 「비궁(闕宮)」의 “이지러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놀래지 아니하여, 삼수로 벼를 지어 퇴와 같고 구릉과 같으소서[不虧不崩, 不震不騰, 三壽作朋, 如岡如陵]” 라는 구절에 대한 주(註)에 “공(公)이 장수하는 것이 퇴와 같고 구릉과 같아서 셋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라고 한 데서 따왔다. 「비궁」은 노나라 희공(僖公)이 주공의 사당을 중건하고 칭송한 시이다.

5. 성균관 유생에게 부과한 제술과의 관련

정조는 전강에서도 제술을 병행하는 일이 많았다. 정조는 성균관 제생을 대상으로 일차유생전강(日次儒生殿講)을 실시했는데, 갱시나 비교시에서는 제술을 부과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³³⁾ 이를테면 정조 22년(무오, 1798) 12월 9일 성균관 제생을 대상으로 일차유생전강을 실시하고 우수한 사람을 뽑아 내정(춘당대)으로 불러 다시 시험을 보였다. 그 결과 표(表)와 부(賦)에서 각 5인이 동점 수석했다.³⁴⁾ 12월 12일

32) 『일성록』 정조 21년(1797, 정사) 6월18일(정해).

33) 일차 유생 전강은 성균관과 사학(四學)의 유생 중에 식당 도기(食堂到記, 아침과 저녁을 합쳐 1점을 부여)가 50점 이상 되는 자를 가려 매년 2월·4월·6월·8월·10월·12월의 16일마다 궁중에 모여서 삼경(三經)을 강하는 것으로 보이던 시험이다. 날짜를 정해 놓고 시행하므로 일차라는 말이 붙었다. 수석(首席)을 가리기 위해 재차 시험을 보이기도 하며, 여러 날이 지나도록 수석이 가려지지 않으면 왕명에 의해 제술 시험으로 대체하여 재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銀臺條例』禮攷 ‘日次儒生殿講’.

34) 이해에는 10월에 일차 유생 전강을 보이지 못해, 12월 9일 좌의정이 주관하여 10월 치와 12월 치

五客記

二天

丁茶山

世之位御相者多烜熾其門客於是華焉皆丹其棘而翠其蓋殊其履而具其纓翼其束衣外煇沾丐餘海嘔聚蛇士以喧藉一時獨深州相國李公不然性澹素不善膠援位列三事而門庭常寂然幾乎雀羅可設於是遂廣求山澤之間羅以致之者凡五至乃館而留之管其飲啜相與羽翼人有難持於公者曰天子任用公謂公能以人事君吐哺握髮開閣延天下賢士以羽儀王庭公獨與彼五子者相善家之門下日翩翩其間僕竊為公弗取也公曰否吾於是五子者有以得宰相薦人之法及天子用人之道將以薦款于朝廷君請為我聽之始余聞居有三各及門皆衣裳奇偉顏貌皓白余使各言其志其一曰吾生平喜聞暇行止亦常忙遽遇雪失素乃李曾經慢我欲以白辭一雙買我為僕吾志甚其一曰吾少貧賤游齊魯霜雪滿衣為人卷劬以資餘身設被卷行而傷遂拳一足老至歸湖自病若結一額滿浴盤滿乃子孫是我心性不亦過其一引頸自傲欲擊刺此世客乃為大言曰吾自來仙骨世居青田聞莊莊衣乃莊史妾欲齋物議我腥長餘不悲哉後仕衛位至乘軒至晉時不幸與陸善華亭之禍遂劇迹自晦今未授公其有仙分矣余乃下堂執手而笑曰公等舍此奚適其館于我三子者相顧勉從遂朝夕相守許以祿期蓋喜其純潔無污軒偉不倫之姿也既而留歲餘客之未至者又報客有二少年入謁皆錦冠倚板金碧玲瓏問其鄉貫一在南粵一自西蕃余素厭倚麗殊不惟三子者亦鄙之然特取其文明敏給姑許信宿以觀其性行乃一者性多妬忌遇婦孺服錦綠者必逐之一者雅薄有穢甚徒高口舌味無謹誦之意余欲屏之三子者請曰相公何器量之小耶

柳考

此宰相擇人不宜一道或取其潔身修行寬博博大之或取其文采藻麗機敏使令之才彼二子者雖生長倚紉無山野豫傑之態亦自有一技一藝何不見容於相公之門哉余笑而曰善並許錦留五客繞席若有異趣余願而樂之遂自謂曰今天子求賢如渴側席以俟彼容上聞雅不妄趨步者可任之聞局以矜式百僚彼身價卷劬飽徑霜雪者可任之民部以察若隱彼自稱仙骨者雅語言誠恠亦可以砥礪流俗而二子者或任之文苑以彌散皇猷或任之味舌以出物王言蓋莫不才行蔚然各適其用吾為相果得人如此薦之朝廷以冀擢用不亦善乎難者曰諾僕知公館養是五客者亦有寓爾遂辭去是客各有美稱曰關客雪容仙客其二者本自西南來者因以是呼之云臣謹記

그림 2. 정약용 「五客記」 1790년(정조 14)

정조는 춘당대에 거둥하여 초계문신을 시험 보이면서 12월 9일 일차유생 건강에서 동점 수석을 한 유생들에게도 초계문신과 함께 응제하도록 했다.³⁵⁾ 이때 유생에게

를 함께 보았다. 『承政院日記』 正祖 22年 12月 8日 ; 正祖, 「太學銀杯詩 御製太學銀杯詩 并序解」
35) 『承政院日記』 正祖 22年 12月 12日 ; 正祖, 「太學銀杯詩 御製太學銀杯詩 并序解」.

음식을 베풀고 내부(內府)의 은배로 법온(法醞)을 하사했다. 은배의 배(腹)에는 “我有嘉賓，俾藏之太學”이라는 명(銘)이 있었다. ‘我有嘉賓’은 『시경』 「녹명(鹿鳴)」의 시구이다. 「녹명」은 임금의 신하들에게 연향을 베푸는 내용의 시이다. 정조는 별도로 「어제태학은배시 병서해(御製太學銀杯詩 并序解)」를 지었다.

이때 정조는 역상(易象)을 추원(推原)하여 훈사(訓辭)를 짓고, 내각(규장각)의 신하들, 초계문신 33인, 응제 시험을 본 유생들 249명에게 각기 가시(歌詩)를 짓도록 명했다. 좌승지 이서구는 오언시 1장을 바쳤고,³⁶⁾ 이만수는 「태학은배명(太學恩盃銘)」을 바쳤다.³⁷⁾ 정조는 12월 14일에 유생들의 시축부터 먼저 인행하라고 명하고, 17일에는 교정관을 지정해 주었다. 이만수는 정조가 즉위 이후 시도한 인재 육성의 근본 취지, 시험을 보인 연도, 고사(考査)의 실제, 포상의 내용을 낱낱이 서술하고, 고등으로 좋은 뽑혀 어고(御考)를 받은 시구, 입격자들이 문과에 급제하거나 벼슬길에 오른 성취를 간추려서 본편의 앞에 싯했다고 해서 허락을 받았다. 또 향후 유생들의 응제 가운데 좋은 작품들을 증보해 나가겠다고 했다.³⁸⁾ 이만수는 성균관 방목과 예조 등록은 물론 ‘내부’에 있던 『어제운발(御製綸綍)』·『일성록(日省錄)』·『임헌공령(臨軒功令)』·『임헌제총(臨軒題叢)』·『육영성취(育英姓彙)』·『어고은사절목(御考恩賜節目)』·『태학응제어고안(太學應製御考案)』 등을 토대로 기록을 수집했다. 이에 『태학은배시집(太學恩杯詩集)』이 편찬되었다. 대제학 홍양호가 서문을 쓰고 대사성 이만수가 발문³⁹⁾을 썼으며, 유생들의 작품을 나이 순서로 편찬한 다음 성명 아래에 각기 어고(御考)에 입격(入格)한 연도와 등수를 기록했다. 또 특별히 1,810자에 달하는 「어제은배시 병서해(御製恩杯詩 并序解)」를 내려 책머리에 싯도록 했다. 이듬해 1799년 3월 말 인행이 끝나 3월 28일부터 춘추관과 관계 기관, 가시(歌詩)를 지은 신하들 33인, 유생들 249인에게 각기 한 질씩 나누어 주었다.⁴⁰⁾

1799년 3월 28일, 통훈대부로서 체아직에 있으면서 서울에 거주하던 윤기(尹楮)는 『태학은배시집』을 두고, 이만수가 편찬한 이 책을 살펴보면 커다란 오류가 있다고 비판했다.⁴¹⁾ 윤기는 이 책의 권수에 있는 「총서」를 특히 문제 삼았다. 이만수는

36) 李書九, 「太學銀杯詩承命恭賦」, 『惕齋集』 권1.

37) 李晚秀, 『履園遺稿』 권6, 「太學恩盃銘」(奉教謹撰). “王言錫爵, 藹藹吉士. 在泮飲酒, 德將無醉. 迺修燕毛, 迺歌鹿鳴. 受言藏之, 有燁其觥. 魚躍于淵, 雲上於天. 吉士作頌, 君子萬年.”

38) 李晚秀, 『履園遺稿』 권6, 「太學銀杯詩集總叙」.

39) 李晚秀, 『履園遺稿』 권6, 「太學銀杯詩集跋」.

40) 을묘년의 정리자 활자본 5권 2책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청구기호 : 일산고3643~51) 등에 있다. 맨 앞에 정조의 「어제태학은배시집 병서해(御製太學恩杯詩集 并序解)」가 수록되어 있고, 권수에는 이만수의 「총서」·「서」, 이만수의 「은배명(恩杯銘)」, 「태학생 전문(箋文)」, 권1에서 권5까지는 시, 권말에는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총서」에서 정조 즉위년 이후에 치러진 응제 시험에 대해 연도별로 고사의 실제와 포상 내용 등을 기록했는데, 예컨대 신해년(1791)의 경우 작자가 두 번이나 수석하고 문과 회시 급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실이 완전히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아 부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는 번다한 말을 아끼지 않고 강조하고 반복했으니, 간신히 한 번이라도 입격했으면 수석이 아니더라도 모두 집어내어 특별히 드러내었고, 이른바 인구에 회자되었다는 구절은 그다지 특별한 점이 없는데도 자자하게 칭찬해 마지 않은 경우가 자주 보인다. 반면에 자신이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빼버렸으니, 비록 여러 차례 수석을 차지했다라도 모두 누락시켰다. 심지어 그가 본편의 앞에 아울러 신겠다고 한,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진출한 사실조차 편파적으로 취사하여 기록했다.” 병신년(1776 정조 즉위년)부터 무오년(1798)까지 23년 동안의 기록이 편파적이라 하고, 신해년(1791) 한 해 동안 실시된 응제 시험만 가지고 자세히 따졌다.

응제를 위해 성균관 유생들은 상당히 혹독한 연습을 해야 했다. 정조는 재위 19년(1795) 2월 13일(을축) 응제에 뽑힌 유생들을 소견하고, 우등한 이대규(李大圭) 등에게 갱시(更試)를 행했으며, 또 우등한 이광현(李光顯) 등에게 삼시(三試)를 행했다.⁴²⁾ 삼중(三中) 이하를 맞은 78인에게는 상을 나누어주고 삼상(三上) 이상을 맞은 22인에게는 전정(殿庭)에서 갱시를 보였다. “거록의 원문에서 12제후의 장을 소견했다[鉅鹿轅門召見十二諸侯將]”로 부제(賦題)를 삼았는데, 진사 이광현과 생원 김사범·김처암(金處巖)·유익주·김일과 진사 홍시걸 6인이 모두 이하(二下)로 동등(同等)하여 비교시를 보였다. 이날 오래도록 상서(祥瑞)를 내리시어 후인들을 계도(啓導)하고 도와주신 경사를 기억하고자 한다면서, ‘큰 별이 무지개처럼 화저에 임했다[大星如虹下臨華渚]’로 부(賦)의 시제(試題)를 삼았다. 응제시 삼시의 부에서 수석을 차지한 생원 김처암은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김처암은 뒤에 급제하고 초계문신으로 뽑힌다.

정조는 이날 유생들에게 각각 정문(程文)을 지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뢰라고 명했다. 이대규는 부(賦) 400수, 시 1000여 수라고 하는 등, 그 연습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88명의 응답자들은 부 100수~1000수, 시 100수~1000수, 표 50수~900수, 책 15수~100수를 연습해야 했다.

41) 尹愔, 『書太學恩杯詩集』, 『無名子集』文集 冊4.

42) 『일성록』 정조 19년(1795, 을묘) 2월 13일(을축).

6. 나오며

정조의 학문이념은 한 시대의 문제를 반영하는 밀도를 지니고 있었고, 한 시대의 문화를 변화시킬 만한 동력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학문이념의 실천 방법은 반드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정약용의 경우를 보면, 초계문신 시절 어제(御題) 책문(策問)에서 학문, 지리, 경제, 정치의 각 방면에 걸친 자양분을 흡수했으며, 초계문신 시절의 제술, 특히 사육문의 제술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고 당시의 응제문을 모두 폐기했다.

정약용은 28~29세 때인 1789년과 1790년 초계문신으로서 친시(親試)에서 대책을 작성하면서 스스로의 학문방향과 방법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즉, 「십삼경책(十三經策)」, 「문체책(文體策)」, 「논어책(論語策)」, 「맹자책(孟子策)」, 「중용책(中庸策)」, 「인재책(人才策)」, 「농책(農策)」⁴³⁾ 등의 작성을 통해, 초년 학술사상의 근간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보았듯이 정조는 재위 13년(1789, 기유) 윤5월 초계문신들과 각신들을 대상으로 ‘지세(隆勢)’에 관한 책문을 내어 시험했는데, 초계문신 정약용은 상고시대부터의 역사를 조망하여 국토의 범위를 상정했으며, 외침을 방어하기 위해 지방행정 제도와 국경 수비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지방 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각 지방의 물산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과 청을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고 울릉도(鬱陵島)와 손죽도(損竹島)에 대한 공도(空島) 정책을 포기하고 그곳에 보루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⁴⁾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대책의 작성은 지적 관심을 확대하고 심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정조는 성균관 유생이나 초계문신들에게 제술, 그것도 사육변려체의 제술을 지나치게 강요했다. 정약용은 자신이 성균관과 규장각 시절에 작성한 사육문을 ‘후회를 기록하는’ 『열수문황(洌水文簧)』 3책에 몰아 두었다. 즉, 1826년(순조 26, 병술, 道光 6) 맹동에 정약용은 젊은 시절부터 연습한 사육변려문부터 시작하여 생원시에 급제한 후 6년 동안 성균관에서 제작하고, 또 문과에 합격한 후 내각(규장각)의 과시(課試)에서 제작한 표(表)·전(箋)·조(詔)·제(制) 등 460수를 모아 『열수문황』 3책을 엮었다. 그리고 『시경』 「교언(巧言)」의 “교묘한 말이 황과 같은 자는 얼굴이

43) 권9의 책문 가운데 「농책(農策)」은 권8에 있어야 할 것이 잘못 편제되었다. 심경호, 「정약용 시문의 계년·호조를 통한 신 정본 제작 방안」,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등연구소 인문정신문화연구원센터 학술 심포지움: 21세기 다산학 연구의 방향과 과제~다산 시대를 넘어서, 2015.12.22.(화) 10:00~18:30,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대회의실(B107호)

44) 심경호, 『정약용의 국토 사랑과 경영론』, 국토연구원, 2011.12.30.

두껍도다.[巧言如簧, 顏之厚矣]”라는 말에서 제목을 따왔다.⁴⁵⁾ 정약용은 변려문은 요컨대 모두 ‘교언’이라고 규정하고, 자서(自序)에서 ‘문황’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후회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⁴⁶⁾ 정조는 과거지문을 ‘취실지학(就實之學)’으로 혁신시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정조의 학술사상에서 가장 자양분을 많이 흡수했던 정약용이 그 기획의 잘못을 통렬하게 비판한 셈이다.

정조의 정치 및 학술 이념과 방법 사이의 상호 불균형은 왕권에 의해서 학술의 규모를 결정하고 왕권에 의해 특수 엘리트 집단을 양성하려던 계획의 의해 초래된 것이었다. 특수 엘리트 집단을 평측, 압운, 용운에 탁월한 인물들로 한정된 것에 문제가 없지 않았다.

정조는 제술을 통해 당면의 현실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려고 했다. 하지만 그 논의를 형식 우위의 문체로 담아내게 했다는 사실, 여기에 정조의 정치 및 학술 이념과 방법 사이의 불균형이 숨어 있다. 정조의 학술을 ‘제왕학’이라는 수사적인 개념으로 파악할 때는 정조의 학술이 이상적인 통치 원리를 창출했으리라고 기대하고 또 그 통치 원리가 정치현실에서 무리 없이 구현되었으리라고 예단하기 쉽다. 이럴 경우, 원리 자체의 내실과 규모 사이의 관계, 원리와 구현 사이의 연관에 관한 진지한 탐색과 반성적 성찰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45) 정약용은, 『서경』 「고요모(皋陶謨)」에서는 우 임금이 고요에게, “임금이 명철하고 은혜로우면 어찌 환도를 걱정하며, 어찌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좋게 하되 크게 간악한 마음을 품은 자를 두려워하겠는가? [能哲而惠, 何憂乎驩兜? 何畏乎巧言令色孔壬?]”라고 했고, 『논어』 「학이(學而)」에서는 “공자가 말하기를, ‘말을 좋게 하고 얼굴빛을 곱게 하는 사람 중에는 인(仁)한 사람이 드물다.’”라고 했다. [子曰：巧言令色, 鮮矣仁]”라고 했으며, 또 『논어』 「자로(子路)」에서는 “공자가 말하기를, ‘강하고 굳세고 질박하고 어눌함이 인에 가깝다.’”라고 했다. [子曰：剛毅木訥, 近仁]”라고 하여, 교언을 경계했다는 점을 하나하나 거론했다.

46) 丁若鏞, 『與猶堂全書補遺』 ○泐水文簧, 自序. “文之有駢儷之體, 非古也. 古蓋有自然之儷, 不苟合也. 六朝之綺, 鬪奇以逞巧, 此體漸熾. 王·楊·盧·駱, 遂大門戶. 自宋以來, 凡賀正·謝恩之表, 命官·封爵之誥, 咸用四六. 蘇·鏞·汪·洪, 亦以名世. 吾東則崔·李炳朗於前古, 蔡·鄭膾炙於近世. 唯明陵盛際, 林·趙·兩李諸家, 蔚然並興, 雖俯趁時規, 不拘拘於格律, 而淘滌鄙俚, 曲盡情禮, 有足以潤色絲綸, 倡率旗鼓, 不可少也. 余自弱冠之初, 則沈淫於此. 及登上庠, 六年於泮宮之試, 旋忝甲科, 三年於內閣之課. 累荷先大王推獎之渥, 批評隆重, 錫賚便蕃. 於戲, 其榮矣! 余今老將死, 舊稿叢殘, 有足悲者. 令兒輩蒐輯散軼, 萃爲一部, 表·箋·詔·制等雜體共四百六十首, 分爲三冊, 題之曰泐水文簧. 文簧者何? 志悔也. 駢儷之文, 雖亦人各殊詣, 要之皆巧言也. 『詩』云巧言如簧, 斯非文中之簧乎? 『書』稱孔壬, 巧言, 孔子曰巧言鮮矣仁, 又曰木訥近仁, 聖人之無取乎巧言, 如是矣. 夫五六年單精竭慮, 作巧言累千萬, 以示其子孫諸友, 可不悔哉? 後世以若藻繪之文, 名之曰貴飾笙鏞. 夫笙之爲笙, 以有簧爲之舌也. 俳言之, 則笙鏞之飾也, 莊言之, 則巧言之悔也. 後之覽是編者, 其知余多悔哉?”

[참고문헌]

『영조실록』

『정조실록』

『承政院日記』

『日省錄』

『銀臺條例』

『內閣日曆』

金鍾秀, 『夢梧集』, 한국문집총간 245, 한국고전번역원, 2000.

徐命膺, 『保晚齋集』, 한국문집총간 233, 한국고전번역원, 1999.

尹 愷, 『無名子集』, 한국문집총간 256, 한국고전번역원, 2000.

李家煥, 『錦帶殿策』; 정선웅 옮김, 『국역 금대전책』, 국립중앙도서관, 2011.

李德懋, 『靑莊館全書』; 『국역 청장관전서』, 민족문화추진회, 1980.

李晚秀, 『履園遺稿』, 한국문집총간 268, 한국고전번역원, 2001.

李書九, 『惕齋集』, 한국문집총간 270, 한국고전번역원, 2001.

正 祖, 『弘齋全書』, 한국문집총간 262~7, 한국고전번역원, 2001; 『국역 홍재전서』, 민족문화추진회, 1998~2000.

丁若鏞, 『(정본)여유당전서』, 다산학술재단, 2012.

김동석, 『조선시대 시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전공 박사논문, 2013.6
참조.

심경호, 『정약용의 국토 사랑과 경영론』, 국토연구원, 2011.12.30.

심경호, 『한시로 엮은 한국사기행』, 범우사, 1995.

심경호, 『한시기행』, 이가서, 2005.

심경호, 「정약용 시문의 계년·호조를 통한 신 정본 제작 방안」,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등연구소 인문정신문화연구센터 학술 심포지움: 21세기 다산학 연구의 방향과 과제-다산 시대를 넘어서, 2015.12.22.(화) 10:00~18:30,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대회의실(B107호)

심경호, 「정조의 문체정책과 제술 부과」, 『진단학보』 127, 진단학회, 2016.12.